

[습근평 총서기 올해 국정운영 실기]

중국식 현대화 건설 전반 국면에 착안해 발전의 협주곡 함께 연주하자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려면 반드시 항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 발전 불균형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올 들어 습근평 총서기는 중국식 현대화 건설의 전반 국면의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검토하고 계획하면서 지역간 균형 발전 전략을 깊이있게 실시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다그쳐 추진해 중국식 현대화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는 것을 항상 념두에 두었다. 올 들어 총서기는 우리 나라 동부와 중부, 서부 지역을 시찰하고 두 차례 좌담회를 주재했으며 새 로정에서 지역간 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데 방향을 제시하고 청사진을 그렸다.

올 3월, 호남성을 시찰한 습근평 총서기는 장사에서 새시대 중부지구 굴기를 둘러싸고 좌담회를 주재했다. 좌담회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신질생산력의 육성과 발전에서부터 식량, 에너지, 자원, 안전보장 능력을 힘써 제고하는 데 이르기까지 6개 면의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중부지역 굴기를 추진할 데 관한 당중앙의 일련의 정책조치를 드팀없이 관철실시하고 고품질 발전을 위한 합력을 형성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중부지역 굴기를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월 하순, 습근평 총서기는 중경을 시찰하고 새시대 서부대개발추진 좌담회를 주재했다. 이는 18차 당대회 후 습근평 총서기가 처음 주재한 서부대개발 주제 좌담회이다. 총서기는 특색우세산업 발전을 주공 방향으로 견지하는 데로부터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을 견지하는 데 이르기까지 ‘6가지 견지’에 관한 요구를 제기했다. 습근평 총서기는 대보호, 대개방,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녑하 중위시 해원현 삼하진 사영촌 촌민들이 구기자를 따고 있다. 사영촌의 구기자 재배면적은 5,300 여무에 달한다.

/ 신화넷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고 지역의 전반 실력과 지속가능 발전 능력을 격상시켜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서 서부대개발의 새 장을 힘써 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6월, 습근평 총서기는 청해, 녑하를 시찰했다. 총서기의 현장 지도는 서부지역으로 하여금 우리 나라의 생대보물고, 발전의 뜨거운 대지, 안전의 장벽, 개방의 최전방이 되도록 추진했다.

청화대학 중국발전계획연구원 상무

부원장 동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총서기가 진행한 매차례 조사연구에서부터 좌담회 그리고 지역간 균형 발전 체제기제를 완비화할 데 관한 3차 전원회의의 요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역간 균형 발전에 대한 중앙의 통일적이고 총괄적인 사고 방향과 포석을 집착할 수 있다. 그리고 제 분야와 각성의 고품질 발전의 임무와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서도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전반 국면의 견지에서 한 구역의 발

전을 기획하고 한 구역의 발전이 전반 국면을 위해 봉사하도록 했다. 올해 습근평 총서기의 인술하에 동부와 서부가 서로 돕고 남북이 협동하며 료해가 통합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이 착실하게 추진되면서 전국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일찍 습근평 총서기는 국내 발전에서 가장 큰 불균형은 바로 도시와 농촌의 발전 불균형이고 가장 불충분한 것은 바로 농촌의 발전 불충분이라고 지적했다. 올 들어 지방을 시찰할 때

마다 총서기는 항촌 진흥을 전면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할 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호남에서 총서기는 농촌의 전면 진흥을 추진하는 것은 새시대, 새 로정에서의 ‘3농’사업의 총적인 착안점이라고 강조했다.

중경에서 총서기는 대도시와 농촌, 산간지대, 저수구역(大库区)을 일체화해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녑하에서 총서기는 인구 류동의 추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정부의 모든 사업은 모두 백성들이 더욱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이다.”

올해 4월, 습근평 총서기는 중경시 구룡파구 사가만가두 민주촌사회구역에서 고찰할 때 이같이 강조했다.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끊임없이 확고히 수립하고 여러 민족 인민의 마음을 한데 이어놓고 여러 방면의 힘을 광범위하게 결집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크나큰 사업을 도모해야 한다.”

올해 6월, 습근평 총서기는 녑하 회족자치구 온천시 금봉구 장성화원 사회구역에서 고찰할 때 이같이 지적했다.

당면과 급후 한 시기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적 시기이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발전 속에서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국식 현대화의 중대한 임무이다.”

현대화의 본질은 사람의 현대화이다. 초요사회의 꿈, 강국의 꿈, 중국의 꿈은 결국 백성들의 ‘행복의 꿈’이다. 인민의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동경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의 분투목표인 동시에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립각점이기도 하다.

20차 당대회가 폐막된 후 습근평 총서기는 섬서 연안에 가서 첫 외출고찰을 진행했다.

안새구 교교진 남구촌에서 농민들이 뚝을 쌓고 점적관수(滴灌)와 정밀화 관리를 통해 물 사용과 관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다는 말을 듣고 습근평 총서기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이것이 바로 농업현대화이다. 당신들은 적합한 산업 발전 방향을 찾았다.”

1940년, 섬감녕변구 연안자연과학원은 사과묘목을 도입했다. 오늘에 와서 사과산업은 연안 전 시를 망라하

[총서기의 인민정감]

“중국식 현대화에서 민생이 가장 중요”

는 가장 광범위하고 지속적 수익이 가장 좋으며 농민들의 소득 증가에 대한 기여가 가장 큰 특색산업으로 되었다. 붉디붉은 사과는 현대화의 길에서 꿈을 꾸던 데로부터 꿈을 이루는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백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큰 당의 인민지상의 가치 추구를 반영해주고 있다.

현대화는 서면상의 지표 데이터도 보아야 하지만 더우기는 인민의 행복과 안녕을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 오직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고 발전은 인민을 위하고 인민에게 의거하며 발전 성과는 인민이 공유하는 것을 견지해야만 정확한 발전관, 현대화관을 수립할 수 있다.

인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대업’이다. “우리의 목표는 아주 웅대한 동시에 아주 소박한바 결국은 백성들이 더욱 좋은 나날을 보내게 하는 것이다.”

더욱 좋은 나날은 최상위(顶层) 설계 속에 체현되는바 어린이에게는 보육시설, 학생에게는 교육시설, 근로자에게는 일자리, 환자에게는 의료시설, 로인에게는 양로시설, 백성에게는 주거시설, 약자에게는 구제시설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 실행하면 삼시세끼 생활필수품, 사회구역내 학교의 량량한 글소리, 집앞에 개업한 로인식당, 트렁크만 들고 입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 아파트이다.

‘국가대업’은 또한 대중의 ‘작은 일’이기도 한바 백성들의 수요는 종래로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전반 국면 속에서 청사진을 그리고 세부적 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발전 성과를 생활의 품질로 부단히 전환’하



8월 6일, 중경시 검강구 봉동향 마전촌의 한 포도지에서 촌민이 포도를 따고 있다.

/ 신화넷

는 인민을 위한 책임을 보여준다.

상해 민행구 새시대 도시건설자관리자의 집에서 ‘신상해인’의 ‘안거의 꿈’(安居梦)을 보고 습근평 총서기는 “도시는 높이가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온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사천의빈학원에서 대학교 졸업생 취업 문제를 고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민생의 우선은 취업’이라고 당부했다.

복건 삼명시 사현총병원에서 의료

개혁 해민 정황을 알아볼 때 습근평 총서기는 “인민의 건강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중요한 징표이다.”라고 강조했다.

...

“나는 지방에서 고찰할 때 항상 농촌, 도시 사회구역에 가서 인민대중들의 생활이 어떠한지, 어떤 훌륭한 경험들을 교류하고 보급할 수 있는지, 어떤 걱정거리와 고민거리가 우리의 해결을 기다리는지 알아보았다.” 백성의 일은 가장 중요한 일로서 습

근평 총서기는 매사를 모두 념려하군 한다.

중국식 현대화는 인구 규모가 거대한 현대화이다. “14억 인구의 먹는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도 작지 않은 도전이다. 또한 취업, 분배, 교육, 의료, 주택, 양로, 보육 등 문제들도 어느 하나 쉬운 것이 없는바 매사와 관련된 군체가 전문학적 수지이다.”

무수한 민생사는 인민들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관련된다. 민생을 보장하고 개선하는 것은 장기적인 사업으로

세에 순응해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고 도시와 농촌의 산업 발전, 기초시설, 공공봉사의 일체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 들어 각지에서는 중앙 1호 문건의 요구에 따라 ‘천만 프로젝트’ 경험을 학습하고 운용해 농촌의 전면 진흥을 힘있게 효과적으로 견인했다. 농업농촌부 당조 서기 한준은 올 상반기 농촌 주민의 인당 가처분소득이 1만 1,272원을 기록하고 실제 성장률이 6.6%에 달해 도시 주민 소득 증가폭보다 2.1% 포인트 높았다고 소개했다.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는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은 중국식 현대화의 필연적 요구라고 제기했다. 전원회의의 〈결정〉은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 체제와 기제를 완비화할 것”을 강조했다. 중국거시적경제연구원 국토개발지역경제연구소 소장 주의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따. 당중앙 20기 3차 전원회의의 〈결정〉은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전면 포지하고 신형의 공업화, 신형의 도시화, 농촌의 전면 진흥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제기했다.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도시와 농촌간의 요소 류동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고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줄이며 도시와 농촌의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진하는 데 유조하다.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의 확고한 지도 아래 중국은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을 힘써 추진하여 강대한 발전 동력을 방출하고 있으며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힘써 추진하여 도시와 농촌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균형 발전 청사진은 보다 광활한 령역으로 확대되면서 중국식 현대화의 참신한 장을 여여가고 있다.

/ 중앙인민방송

서 종착역이 없으며 오직 연속적이고 부단한 새로운 출발점이 있을 뿐이다.

공동부유는 사회주의의 본질적 요구이며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이다. 고품질로 공동부유시범구를 발전시키고 건설한 절강성은 경제가 거족적인 발전을 가져왔으나 한때는 ‘도시를 중시하고 농촌을 경시하느’곤혹을 겪었었다. 2003년, 당시 절강성당위 서기를 맡고 있던 습근평동지의 계획과 포지 아래 절강에서는 ‘천촌시범, 만촌정비’ 공정을 가동했다.

‘천만공정’은 주거환경 정비를 착안점으로 수많은 아름다운 농촌을 건설했으며 수많은 농민군중들에게 복지를 마련해주었다. 2023년 9월, 습근평 총서기는 의오(义乌)시 후택가두 리조촌에 와서 이곳이 절강 ‘천만공정’이 두드러진 성과를 거둔 축소판이라고 긍정해주었으며 모두 함께 공동부유의 아름다운 미래로 달려갈 것을 격려했다.

올해 4월, 중경에서 고찰할 때 습근평 총서기는 ‘천만공정’ 경험을 잘 학습하고 잘 활용하여 ‘현단계 농민군중들의 수요가 강렬하고 틀어질 수 있고 수년간 틀어지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중점적인 실제적 일을 틀어쥐는 데 초점을 맞추어 틀어쥐는 족족 성사시킴으로써 농민군중들이 이를 느끼고 접근할 수 있으며 실제적 혜택을 얻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각급 당위와 정부가 모두 민생문제 해결에 더욱 많은 재력과 물력을 투입하여 해마다 일부 민생의 실제적 일을 성사시킴으로써 인민대중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전감을 끊임없이 증강시키기 바란다.” 습근평 총서기는 이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중국식 현대화가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관건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견지하는 데 있다. 경제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동시에 민생도 따듯이 보살펴야 한다. 중국식 현대화의 민생 담안지가 끊임없이 씌여지고 있다.

/ 인민넷-조문판